

‘영화의 도시’서 ‘창업의 도시’로

# 부산, 스타트업·벤처로 물들다

창업자 노하우·성공 스토리 알려

스타트업 교류·협력 속 소통 강조

‘영화의 도시’ 부산이 도전·혁신의 아iron인 스타트업과 벤처로 물들었다.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선배 창업자들이 전하는 스타트업의 삶과 노하우, 크리에이터와 창업기업이 밀접한 협력·도전·창업·성공,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IR, 글로벌 스타트업 써밋, 민간 발굴 스타트업 퍼칭 IR, 재도전의 날 등이 진행된다.

장소도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호텔, 웨스틴 조선, 더베이101, 누리마루 등 부산 해운대 일대 명소에서 두루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IR, 강연 및 포럼, 네트워킹, 문화공연, 전시체험 등 총 44개 행사가 사흘간의 ‘벤처창업 페스티벌 2018’ 기간에 열린다.

벤처창업페스티벌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열린 것은 2001년 첫 행사 이후 처음이다.

부산은 2016년 문을 연 기술창업종합 지원센터인 ‘부산센타’를 중심으로 56개 창업지원기관과 13개 엑셀러레이터가 몰려있는 ‘제2의 스타트업’ 도시로 꼽히고 있다.

행사 이튿날인 9일엔 특히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누나이자 페이스북에서 대변인 겸 마케팅 이사를 역임한 주커버그미디어의 랜디 주커버그가 ‘Future Consumer(미래의 고객)’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또 글로벌 AR(증강현실)·VR(가상 현실) 전략 및 컨설팅회사인 인데버VR의 창립자 에이미 페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첫 날 열린 ‘스타트업 성공사례 전파’에 선 제주패스 윤형준 대표, 시지온 김미균



‘벤처창업 페스티벌 2018’ 행사는 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스타트업 성공사례 전파’에서 강연자들이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표의 특별강연, 다자요 남성준 대표, 브랜뉴테크 박승배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등의 창업 도전기가 펼쳐졌다.

비가 오는 가운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이날 강연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중들이 자리를 빼곡하게 채우면서 열기를 더했다.

같은 날 해운대 더베이101에선 창업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만나는 ‘TIPS(팁스) 그랜드 컨벤션’도 열렸다.

팁스 시상식에선 라이클(매출), 엔트리움(수출), 브레인커머스(고용), 루닛(투자)이 각각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와 협력”이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선 간힌 공간을 벗어나 열린 광장에서 자유롭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가 한 단계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9일엔 ‘2018 재도전의 날’ 행사도 열린다.

실패컨퍼런스로 시작하는 행사는 실패를 경험한 뒤 회복하게 부활하고 있는 방송인 이상민씨가 사회를 본다. 또 실패컨퍼런스의 원조격인 미국 페일콘의 카스 필립스 글로벌 프로듀서가 페일콘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페일콘은 2009년 당시 미

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이후 지금은 프랑스, 이스라엘, 브라질, 인도 등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에 재도전의 씨앗을 심고 있다.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개발한 박종환 록앤올 대표가 전하는 도전 노하우도 만나볼 수 있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부실채권 정리, 파산 후 생계부담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엔 특별자금·보증을 마련해 기술·사업성이 있으나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통해 ▲2021년 까지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3000억 원 정리를 통한 8만여명 채무조정 지원 ▲중진공·기보 등이 보유중인 12만여건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향후 5년간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 주홍글씨를 제한해 2021년까지 2만여명(추정)의 신용회복 지원 ▲2021년까지 사업모델 고도화 등 혁신 재창업을 위해 1조원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벤처창업페스티벌 2018 행사는 이외에도 해운대 구남로 일대를 IT, 게임, 헬스, 뷰티, 교육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갖춘 100여 개 스타트업 제품으로 꾸며 일반인들이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POP 콘서트, 락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했다.

/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코웨이

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물·공기 전문기업 알리기

코웨이는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물·공기 전문 기업 이미지 쌓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중심 사업으로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도하는 첫 번째 수입박람회이다.

코웨이는 이번 전시에서 ▲깨끗한 공기 흐름을 만드는 차별화된 에어 다이나믹스 기술을 적용한 공기청정기 9종 ▲R 0멤브레인·나노트랩 필터 등 다양한 필



코웨이 이해선 대표(오른쪽)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코웨이 전시 부스를 찾은 바이어들에게 코웨이 공기청정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터 시스템을 갖춰 지역 수질 환경에 따라 맞춤 사용이 가능한 정수기 7종 ▲비데 5종 ▲의류청정기 1종 등 총 22종의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공기청정기 전문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계절과 환경, 공간별로 복잡한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차별화된 필터 시스템을 전시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기업·바이오

셀트리온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 ‘CT-P16’ 3국서 임상3상 시작

불가리아·헝가리·한국서 승인받아

“경쟁제품 차별화로 시장 선보일 것”



의 아바스틴은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교모세포종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다. 아바스틴은 지난해 세계 매출 약 7조5000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개발 성공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셀트리온은 까다로운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분야에서 축적한 독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CT-P16의 임상 3상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CT-P16은 상업화 시점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onge@

## 바이오 5개 협회

# “유전자정보,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협회

등 58개 기관에서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은 8일 표명했다.

협회들에 따르면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와 이익 공유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

하는 경우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어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중국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 하므로 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물유전자원과 동등시하는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혁신과 이용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7

/이세경 기자

## 이화여대의료원-카자흐스탄 교류 ‘활발’

의료기술 전파 등 교류활동 이어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달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와 알마티를 방문해 선진 의료 기술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백남선 이대 여성암병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화의료원 대표단은 먼저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있는 한국국제의료협회(KIMA)의 ‘메디컬 코리아 2018’ 행사에 참여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했고, 백남선 병원장은 ‘암 알아야 이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이어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최대 산업 도시인 알마티에서 현지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인 ‘ALL ASIA’ 카자흐스탄 지사를 방문해 무료 진료도 진행했다.

또 카자흐스탄 국영 TV 방송은 백남선 원장과 이화의료원 대표단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백남선 병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그동안 지속해 오던 교류 협력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었다”면서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를 통해 이화의료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